

다향오리

열탄불고기, 출시 두달 만에
누적판매 7만팩 돌파



다향오리가 '열탄불고기' 출시 두 달여 만에 누적 판매량 7만 팩을 돌파했다. 지난 4월에 첫 선을 보인 '열탄불고기'는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7만 팩을 돌파한 바 있다.

열탄불고기는 다향오리가 키운 100% 국내산 오리만을 가공한 양념육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불고기 소스, 풍미를 더해주는 고소유와 함께 깊은 불 맛을 느낄 수 있어 출시 직후부터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열탄불고기는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동봉된 소스와 함께 굽기만 하면 완성되는 반조리 식품으로, 요리할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구나 워킹맘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오리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열탄불고기 볶음밥용 특제 소스는 주부 소비자 모니터 요원으로부터 별도 제품 출시 요청을 받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다향오리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다향 오리 연구소를 설립해 신메뉴 개발 및 제품 연구는 물론 오리고기의 풍부한 맛과 영양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오리고기를 일상식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맛과 품질, 편의성을 차별화시킨 제품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목우촌

또래오래 신메뉴 ‘마왕치킨’
1월 출시이후 꾸준히 인기몰이!



농협목우촌(대표이사 김용훈) 또래오래의 신메뉴 ‘마왕치킨’이 1월 출시 이후 꾸준히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또래오래 ‘마왕치킨’은 바삭하게 튀겨낸 치킨에 특제 발사믹간풍 소스를 사용해 네가지맛(매콤, 새콤, 달달, 짭짤한 맛)을 한입에 모두 느낄 수 있어 오감을 자극하는 중독성 있는 풍미를 제대로 구현한 제품이다. 특히 맥주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이다.



또 감자튀김과 같은 사이드 종류와 함께 즐기거나 밥을 비벼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메뉴 ‘마왕치킨’을 즐길 수 있다.

농협목우촌은 각종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마왕치킨’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인기메뉴 ‘갈릭반핫양념반치킨’과 함께 신메뉴 ‘마왕치킨’이 브랜드 대표 메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훈 대표는 “또래오래 치킨은 국내산 목우촌 닭고기만을 원료육으로 사용해 그 어떤 치킨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치킨”이라며 “또래오래 마왕치킨이 발사믹 간풍소스의 매콤하면서도 중독적이고 차별화된 맛으로 고객의 입맛을 꾸준히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